

근접성 없는 공동체의 사례 연구

- 충북 괴산 탑골 만화방을 대상으로 -

이정민* · 이만형** · 홍성호***

A Case Study of Community without Propinquity : focused on Topgol Comic Book Space in Goesan, Chungbuk

Lee, Jung-Min* · Lee, Man-Hyung** · Hong, Sung-Ho***

요약 : 공동체의 의미와 역할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전통적인 근린 중심의 공동체 이론은 ‘근접성 없는 공동체’ 개념으로 위협받아 왔고, 교통과 통신, 인터넷과 SNS의 변화를 포괄하면서 공동체의 근접성은 더 이상 공동체의 전제조건이 아니게 되었다. 이 연구는 ‘근접성 없는 공동체’의 틀로 공동체 이론의 전개과정을 고찰하고, 사례로서 충북 괴산에 위치한 탑골만화방의 공동체성과 공간적 특성을 사회네트워크분석(SNA)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탑골만화방은 서울, 대구, 부산, 김해, 청주, 상주 등 전국에서 방문하며, 지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탑골만화방은 또한 공공공간으로서 개방되어 있고, ‘목적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여러 활동을 실행하는 장으로 기능한다. 탑골만화방은 지역 내·외부의 사람들이 관계를 맺으며 공간적·사회적으로 경계를 확장해나가는 공동체적 특성을 보여준다.

주요어 : 근접성 없는 공동체, 탑골만화방, 사회네트워크분석

Abstract : The meanings and roles of community have been changed. Traditional community theories hinged on the neighborhood have been threatened by the alternative concept of ‘communities without propinquity’. Embracing unprecedented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Propinquity of community has not been a precondition. This paper reviews the development of community theories with a frame of ‘communities without propinquity’. Furthermore, applying social network analysis(SNA) approaches, it explores the communality of Topgol Comic Book Space, located in Goesan, Chungbuk and examines spatial characters. Visitors’ networks of Topgol Comic Book Space build up national coverage and expands. It functions as a field of testing various activities without explicit ‘fixed purpose’. The case exemplifies a community, continuously enlarging the spatial and social boundaries, performing a series of activities, and connecting both the outside and the local.

Key Words : communities without propinquity, Topgol Comic Book Space, SNA.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대상

자본주의의 심화에 따른 부의 불평등, 가족의 해체, 도심 재생, 공유 경제 등 여러 사회문제의 대안과 실천적 단위로서 공동체(community)는 학술 뿐 아니라 정책, 지역운동 분야에서 핵심 의제로 부상하였다.

전통적 공동체를 근간으로 한 근린 중심의 공동

체는 개인화·파편화된 삶을 유기적으로 엮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과거와는 달리, 도로 등의 교통기반시설이 잘 갖춰지고, KTX, 자동차 등의 기술적, 경제적 발전을 통해 사람들의 이동성은 크게 향상되고, 물리적 거리의 제약은 이제 극복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TV,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이어지는 사회적·문화적 발전을 통해 이제 사람들은 다양한 공동체를 조직하고, 공동체가 구성되는 방식 또한 다양해졌다.

그렇다면 현대의 변화들을 수반한 새로운 공동

* 충북대학교 환경·도시공학과 박사수료(Ph. D. Candidate, Department of Environmental·Urban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urbanlove@naver.com)

** 충북대학교 환경·도시공학과 교수(Prof. Department of Environmental·Urban Engineeri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manlee@chungbuk.ac.kr)

*** 충북발전연구원 지역발전연구부 연구위원(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Regional Development, Chungbuk Research Institute)(hongsh@cri.re.kr)

체들은 무엇으로부터, 누구에 의해, 무엇을 위해 구성되고 있을까? 근래에 새롭게 만들어진 공동체는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탐구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 연구는 ‘근접성 없는 공동체’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보고, ‘근접성 없는 공동체’의 사례로 충북 괴산에 위치한 ‘탐골만화방’의 사회적, 공간적 특성을 고찰하여 특정 지역에 기반한 공동체와의 차이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2013년 충북 괴산에서 문을 연 탐골만화방은 만화방과 게스트하우스로 구성되어 있다. 만화방은 만화방으로 기능할 뿐 아니라, 공공영역으로 개방되어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과 축제를 기획·주최하는 공간적 특성을 보여준다. 또 게스트하우스 덕분에 지역 거주민 뿐 아니라 타 지역 거주민들이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관계를 맺어가는 사회적 특성이 있다.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Wellman(1979)의 ‘Community Questions’는 공동체 관계망 연구의 지침을 제공해왔다. 그는 이 스타 요커스 거주민의 친밀한 연결망을 분석하여 1차적 관계망인 혈연, 지연, 학연의 관계망이 지리적 경계에 국한되지 않고 공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과, 혈연의 폭이 감소하고 직장 동료와 친밀한 관계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전화 등의 통신수단 발전, 직주 분리, 편리한 교통의 영향임을 지적하였다.

즉, 기존의 공동체 논의가 지리적으로 귀속된 혈연, 학연, 지연과 같은 1차적 관계망에 지나치게 주목함으로써, 현대인의 사회적 관계가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선형적 전제를 비판하고, 연결망 접근을 대안적인 공동체 논의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연구는 Wellman의 연결망 접근법을 차용하여 연구의 대상인 탐골만화방 주요 방문객들의 친밀한 연결망 구조와 연결망 구조에 내재한 공간적 특성을 함께 분석한다. 관계적 프레임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는 접근법의 장점으로 공동체가 위치한 공간적 측면 뿐 아니라 공동체를 구성하는 행위자들의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비물리적인 공동

체의 구조와 실천들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탐골만화방 주요 방문객들의 친밀한 연결망은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고, 탐골만화방에서 일어나는 행위자들의 문화적 실천과 공동체적 의미를 포착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동시에 진행하였다. 설문대상은 탐골만화방의 설립자인 공공미술삼거리 대표 양○○ 작가와 탐골만화방 공식행사인 ‘배꽃 필 무렵’에 참석한 방문객 14명이다.

연결망에 대한 설문결과는 사회 네트워크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사회 네트워크 분석은 행위자를 의미하는 노드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를 의미하는 링크로 구성되는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기법으로, 관계망의 전체적 형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관계의 형성 구조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적합하다(Carrington *et al.*, 2005). 또한 행위자의 지리적 속성과 연계함으로써 네트워크의 공간적 특성을 고찰하는 데에 활용되기도 한다(Neal, 2013). 네트워크 분석과 지도는 Net Miner 3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는 모두 5장으로 이루어진다. 제1장 서론에 뒤이어 제2장에서 공동체의 이론적 고찰과 함께 공동체 연구의 흐름을 기술한다. 제3장은 탐골만화방의 현황, 이용자들의 활동 및 심층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이곳의 공간성과 공동체성을 탐색한다. 제4장에서는 탐골만화방 방문객들의 친밀한 관계망을 분석하고, 관계망에 내재된 공간적 네트워크 특성을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공동체로서 탐골만화방의 사회적 공간적 함의를 도출한다.

2. 선행연구 검토

1) 공동체의 근접성

‘공동체(community)’의 개념은 장구하고 복잡한 역사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대와 학문 분야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모순적인 방식으로 정의되고 이론화되어 왔다.(Valentine, 2001: 141)

공동체를 정의하는 데 있어 Hillery(1955)는 가장 기초적인 단서를 제공하였다. 그는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분류한 후, 공동체의 특성으로서 ‘공

통적인 유대'를 가지면서 '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고 정의하였다. 이후 공동체 연구는 주로 '근린(neighborhood)'을 대상으로 해 왔고, 이에 공동체는 근린과 혼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community'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공동체'가 분리되지 않고,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이철우·박상민, 1998: 15). 이는 일상생활의 현장인 공동체가 지리성·공간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한상진, 1991: 195).

일반적으로 물리적 거리의 근접은 친밀한 사회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의 전제조건이다.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이웃 속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기반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Valentine(2001)은 근린 공동체의 발생 요인을 4가지로 정리하였는데, 이는 근접성(proximity), 영역(territory), 사회적 동질성(social homogeneity), 시간(time)을 일컫는다. Jacobs(1961)도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을 통해 근린 차원의 도시 공동체가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바 있다. Blokland(2008) 또한 도시 유대 연구를 통해 여전히 근린이 '그룹 구성원이 그들의 고유의 양식과 가치를 표현하고 영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무대라고 묘사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근린 개념은 TV, 스마트폰의 새로운 미디어와 교통·통신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사람들의 활동은 이제 더 이상 특정한 지리적 위치에 고정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공동체의 근접성은 의문시되기 시작했다.

2) 근접성 없는 공동체

Wirth(1938)의 '생활양식으로서의 도시성(Urbanism as a Way of Life)' 논문을 통해 촉발된 공동체 연구는 참여관찰과 분석을 통해 공동체가 존속되어 왔으며, 근린과 공동체가 일치한다는 전제를 의문시하고, 오히려 관계성과 영역성으로부터 해방된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입증해왔다.

Webber(1963: 23)는 공간상에 드러나지 않는 공동체를 연구하여 '근접성 없는 공동체(communities without propinquity)' 개념을 제시하였다.

Wellman(1979·2003)은 기존의 공동체 연구들

을 이론화하여 상실된 공동체(community lost), 남겨진 공동체(community saved), 해방된 공동체(community liberated)로 분류하였다. 그는 그동안의 연구가 근린에만 협소하게 초점을 두어 근린의 공동체적 연대와 친족관계에 지나치게 몰두 했다고 비판하고, 더 넓은 사회적 연계를 근린으로부터 외부로 분산된다고 개념화했다. 그는 이스트 뉴욕 거주자 사례를 통해 기존의 친족 및 이웃 관계를 친구와 직장동료들이 대체해 왔으며, "스스로 선택한" 동호회나 각종 모임의 사람들과 관계 맺고 있음을 증명하고, 이를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networked individualism)'로 명명했다.

사람들은 이제 한 그룹에 속해있기 보다는 직장과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순환한다. 그들의 직장과 커뮤니티 네트워크는 사회적 공간적 경계가 모호하고, 중첩적이며, 분산되어 있고,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다. 각 개인은 유대와 네트워크 사이의 매개체다. 사람들은 직장이나 가정에 기초하기보다 개인으로서 연결되어 있다. 각 개인은 분리된 개인 커뮤니티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빠르게 다양한 하위 네트워크 사이를 전환한다. (Wellman *et al.*, 2003)

이와 유사하게 Wellman and Leighton(1979)은 공동체의 사회적 구조를 "사회구조를 반영하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커뮤니티"로 상정하였고, Castells(1996·2005)도 '개인화된 공동체(privatized community)'라는 개념을 통해 공동체를 넓은 사회공간적 네트워크로 구조화하였다.

Olson(1982: 502) 또한 개인을 특정한 지역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사회적 연결망으로 구성된 개인적 커뮤니티를 가지는 존재로 묘사함으로써 Wellman의 해방된 공동체론을 지지하였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장소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가상 공동체가 출현하고, 새로운 방식의 관계들이 생겨나면서, 공동체의 근접성은 더욱 위협받고 있다.

더 나아가 '공동체 없는 근접성(propinquity without community)' 개념도 등장했다. 이는 근린과 공동체가 동일하다는 기존의 관념과 정면으로 대치된다(Valentine, 2001: 160). 근린은 '잠재적으로 영역적 기반을 제공하지만, 공통의 목적, 행위, 정체

성을 보증하는 데 충분하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으며'(Cater and Jones, 1989: 168) 그 곳에 살지만, 도구적으로 사용할 뿐, 자기의 관심사라고 여기지 않고 그저 지나치는 공간이다.

Reijndorp(2005)는 지역 커뮤니티의 결속과 조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도시 거주자의 선택의 자유를 위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정 동네에 거주한다고 동네의 사회적 활동에 참여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보다는 '이질성의 프레임(a framework for heterogeneity)'을 제안한다. 서로 다른 거주자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면, 공동체가 굳이 지역 기반의 '로컬 커뮤니티'를 이를 필요는 없다(Waal, 2014: 47).

Waal(2014)은 '공동체 없는' 근린을 '에테르 존(ethereal zone)'에 비유한다. 그리고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interface)으로 기능해야 함을 주장한다.

현대 사회의 특성인 개인들의 개별화·과편화는 이제 개인들이 전통적인 커뮤니티로부터 해방되고, 자신의 관점에 따라 삶을 영위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Waal, 2014: 63). 이는 타인과의 관계망이 끊어진 개인이 아닌, 도시 거주자의 선택의 자유와 유목민적 삶을 통해 다양한 그룹들과 관계를 더 많이 맺는다는 점과 부분적으로 중첩되는 다수의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3. 탐골만화방의 공동체성

1) 탐골만화방의 개요와 활동¹⁾

탐골만화방은 '시골 마을에도 쾌락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예술단체 공공미술삼거리가 충북 괴산군 문광면 سنگ리의 한 농가를 개조해 만든 만화방이다.

탐골만화방은 약 50m²의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2,000여 권의 만화책이 구비되어 있는 만화방과 5개의 방, 샤워실, 생태돛간이 있는 게스트하우스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예술진흥원의 시민문화 예술교육 거점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약 3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공미술삼거리 작가들과 작

가들의 지인들이 워크숍과 품앗이로 농가 창고를 만화방으로 개조했다. 2012년 공사를 시작했고, 2013년 완공했다.

공간 구조적으로 농가인 게스트하우스와 만화방으로 공간이 분할되어 있는데, 상주하는 관리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개방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한다. 방문객이든 동네 주민이든, 누구나 만화방에 들러 책을 볼 수 있고, 생태돛간 사용 등의 원칙을 숙지하는 방문객은 예약을 통해 숙박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스스로 사용했다고 생각하는 에너지를 산출하여 자율적으로 기부하는 방식이며, 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로 70%를 사용하고, 자율기부금 중 30%는 마을에 기부한다.

공공미술삼거리 대표 양○○ 작가는 탐골만화방을 이렇게 소개한다.

“마을에 열려있는 문화 공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예술가, 활동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이곳을 ‘목적 없는 공간’이라 부릅니다. 이 공간은 만화방으로 위장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화라는 장르를 좋아하기도 하고, 만화는 풍부한 상상력과 서사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상상을 불러넣기 때문입니다. 탐골만화방은 컨셉이나 아이템이 분명히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느슨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공공미술삼거리가 탐골만화방을 통해 추구하는 바는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느슨하면서 필요에 의해’ 모이고 연대할 수 있는 공동체이고, 만화책이 매개가 된 탐골만화방은 공동체의 공유 공간으로서 “새로운 공동체 가치를 실험하기 위한 거점 공간”이 된다.

탐골만화방에는 예술가, 공무원, 협동조합 활동가, 귀농 청년을 비롯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든다. 개인 뿐 아니라 공동체 생활자, NPO, NGO에서도 방문한다. 개관이후 현재까지 사직동 그가게, 소행주, 채식평화연대, 청년주거협동조합 “모두들”, 솔맹이골 공부방, 귀촌탐방팀 등 전국에 산재한 여러 단체와 개인들이 방문하였다.

일반 방문객과 구분하여 이곳에 애착을 가지고 자주 방문하는 사람들은 ‘소사’라는 호칭으로 서로를 호명한다. 이들은 주말, 또는 한 달에 한번 이

상 탐골만화방의 공동생활에 동참한다.

문화 활동이 제한된 ‘시골’에서의 탐골만화방은 외부자 뿐 아니라 지역민의 공간으로 함께 사용된다. 지역 내의 단골 방문객은 인근에 거주하는 젊은 청년들과 조부모 댁을 방문하는 손자 손녀, 그리고 귀촌귀농인 자녀들이다. 또한 괴산언론협동조합이 만드는 인터넷 신문인 ‘느티나무통신’ 기자들은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열고, 작업공간으로 사용한다.

“지역에서 필요한 공간이 되길 바랐는데, 느티나무통신 기자들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는 장소가 되니 공간이 할 일을 하는 것 같아 좋습니다.” (공공미술삼거리 대표 양○○ 작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탐골만화방은 도시 거주자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유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세대를 어우르는 만화책, 도심에서 벗어나 한적한 시골에서 만난 ‘만화방’이란 이질적 호기심, 그러기에 이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 나와 다른 의견들도 이해하고 새로운 시각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육○○)

탐골만화방에서는 다양한 활동들이 비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또는 즉흥적으로 일어난다. 이에 따라 탐골만화방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변한다. 어떤 사람이 모이고,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공간의 기능이 변하기 때문이다.

‘탐골다방’이라는 행사를 통해 방문객이 직접 원두를 볶고 커피를 만들어 마시기도 하고, 작은 영화제를 열어 독립영화도 함께 감상한다. 또 목공, 우쿨렐레, 바느질와 같은 소모임도 주선하고, 1년에 두 번 만화에 관한 세미나²⁾도 개최한다.

지역 행사인 괴산페스티벌과 연계하여 행사를 지원·참여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에는 ‘제8극장’의 공연이 탐골만화방에서 열려 탐골만화방 방문객들, 인근의 주민이 한자리에서 공연을 즐겼다.

2015년에는 4차례에 걸쳐 충북문화재단과 공동기획으로 문화다양성 ‘이야기 평상’을 개최하여 문화다양성을 통한 예술, 공동체, 지역 경제의 연계

그림 1. ‘니꺼 내꺼가 세상에 어디 있어’ 포스터

방안에 대한 토론도 이어갔다.

상호 학습은 만화방 손님들 또는 외부 강사가 각각 자기 분야에 대해 강의하고, 다른 분야의 강의를 받는 열린 학습의 장이다. 이는 탐골만화방에서 지속적으로 강화하려는 주된 활동이기도 하다.

2015년 탐골만화방 소사들과 방문객들이 자발적으로 제안하여 7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니꺼 내꺼가 세상에 어디 있어’에는 지역 내·외부의 사람들이 참여하여 재능과 경험을 공유했다.

최근 탐골만화방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활동은 텃밭 농사다. 경제와 일상을 공유하는 실천의 일환으로, 주말의 공동식사 재료를 텃밭에서 키운다. 규모는 작지만, 텃밭 때문에 괴산과 인근의 상주, 안동의 귀촌귀향인, 귀촌을 원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찾는 횡수도 늘어나고 있다. 탐골만화방은 현

재 협동조합 형식으로 텃밭의 규모를 확장한 공동 경작을 논의 중에 있다.

“공간이 목적성이 정해지지 않아 다양한 일을 해 볼 수 있고, 느슨하지만 정확한 규칙이 있어요. 게다가 시골에 위치하고 있어 일상과 벗어난 느낌을 줍니다.” (조○○)

“이곳에는 강요하지 않는 자유로움이 있어요. 공동체란 이름으로 암묵적 강요가 이루어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것이 텃밭만화방이 지닌 차별성입니다.” (차○○)

새로운 사회적 관계는 ‘지역의 동일성’에 기반하기 보다는 ‘관심과 가치의 유사성’의 근거해서 형성된다는 Castells의 예상이 이곳에서 재현되고 있다.

이곳을 방문하는 행위자들이 텃밭만화방을 이용하는 방식과 상호 교류하는 관계에 따라 공간성이 새롭게 재생산된다. 여기서 일어나는 행위들은 미리 계획되거나 조정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문화, 예술, 귀촌, 여행, 놀이, 축제, 상호 학습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간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유하고, 공유가치 프레임을 통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곳의 개인들은 텃밭 만화방과 관련한 가치에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괴산’, 또는 ‘텃밭만화방’에 살지 않고, 이곳에 소속된 타인들을 알지 못함에도 텃밭만화방의 상징적 코드들을 공유하고, 연대감을 느낀다.

“텃밭만화방의 매력은 공간입니다.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삶의 가치를 나누고, 또 이런 사람들이 오는 공간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이○○)

텃밭만화방을 매개로 모여드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대는 “스스로 선택한” 외부의 공간을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Wellman이 예견한 ‘네트워크화된 개인주의’의 형태로 판단할 수 있다.

이들은 지역 기반의 공동체를 형성해 온 ‘거주지-일터’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다양한 실험들을 통해 소비사회의 메커니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로 연결된 다양한 관계들과 활동들은 텃밭만화방 자체를 집단적 예술로 창조하는 과정으로 보여진다. 이곳은 완전한 형태로 존재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생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재영역화 된다.

4. 텃밭만화방 연결망의 공간적 네트워크 특성

텃밭만화방 방문객들의 연결망 분석을 통해 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들의 특성과 관계에 내재된 공간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 자료는 설문문을 통해 조사한 텃밭만화방 방문객들의 ‘친밀한 관계’(10명 이내)와 그들의 거주지, 관계를 형성하게 된 경로, 만남의 횟수이다.

텃밭만화방 주요 방문객이 맺고 있는 ‘친밀한 관계’의 형성 경로는 빈도분석을 통해 ‘친밀한 관계’들이 전통적 공동체들의 특성인 ‘지리적 근접성’과 가족, 이웃 등의 ‘1차적 관계망’들로부터 얼마나 ‘해방’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또한 친밀한 관계들의 ‘거주지’와 ‘만남의 횟수’는 사회네트워크분석(SNA)에서 제공하는 세 가지 중심성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지도화하여 텃밭만화방의 공간적 영역을 확인한다.

1) 텃밭만화방 연결망 특성

(1) 텃밭만화방 방문객의 연결망 특성

텃밭만화방의 정기 행사인 ‘배꽃 필 무렵’에 참여한 14명 중, ‘소사’는 7명이었고, 소사가 아닌 방문객은 7명이었다. 이들의 연령은 35~40세가 7명(50%)으로 가장 많았고, 30~34세 3명, 40~44세 3명, 45~50세 1명으로 30~40대의 사람들이 주로 모인다. 직업은 문화예술 종사자가 4명(28.6%)이고, 전문직과 회사원이 각 3명(21.4%), 그 외에 공무원, 전업주부, 무직, 시민단체 종사자가 각 1명으로 다양하다. 가족 관계 유형은 ‘1인 가구’ 6명(42.8%), ‘가족+2자녀’ 6명(42.8%)으로, 가족 유형에 따른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설문에 응답한 14명의 ‘친밀한 관계’는 총 115명으로 조사되었다. 1인당 평균적으로 지닌 친밀한 관계는 8.2명이다.

응답자와 115명이 관계를 맺게 된 경로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탑골만화방 방문객의 친밀한 관계

관계	수(명)	비중(%)	관계	수(명)	비중(%)
가족	12	10.4	종교	1	0.9
이웃	6	5.2	공식 단체	15	13.0
동창	29	25.2	비공식 모임	35	30.4
친척	0	0.0	인터넷 동호회	0	0.0
직장 동료	17	14.8	계	115	100.0

인적 관계망을 이루는 가장 큰 관계는 비공식 모임 30.4%, 동창 25.2%, 직장동료 14.8%, 공식 단체 13.0%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공동체로서 주요하게 다루어 온 1차적 관계망인 가족과 이웃은 각각 10.4%, 5.2%로 매우 낮은 비중인 반면, 동창은 여전히 큰 비중으로 관계망을 이루고 있다. 일상에서 빈번하게 마주치는 가족과 이웃, 직장동료의 비중이 낮다는 것은 ‘빈번한 마주침’ 그 자체가 친밀함을 형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목할 것은 기존의 공동체 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던 비공식 모임의 관계가 개인의 관계망을 주요하게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가지 특이한 결과는 가상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SNS를 통한 인터넷 기반의 온오프 모임들이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기반의 동호회를 통해 형성된 친밀한 관계는 한 명도 조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면대면(face to face) 관계가 여전히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친밀한 관계들과의 만나는 횟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친밀한 관계들과의 만남은 1년 6회 미만이 30.4%로 가장 높고, 월 2~3회가 22.6%, 주 2회 이상이 20.0%로 조사되었다.

이중 주 2회 이상으로 분석된 20.0%에는 가족 관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만나는 가족을

제외하면, 주 2회 이상 빈번한 만남을 갖는 관계의 비중이 더 낮으리라고 유추할 수 있다.

표 2. 친밀한 관계와의 만나는 횟수

만나는 횟수	수(명)	비중
주 2회 이상	23	20.0%
주 1회	12	10.4%
월 2~3회	26	22.6%
월 1회	19	16.5%
1년 6회 미만	35	30.4%
계	115	100.0%

친밀한 관계 중에서 1년 6회 미만으로 만나는 관계가 30.4%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에서 만남의 빈도는 상대적으로 느슨해졌음을 알 수 있다.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개인의 일상이 다수의 친밀한 관계들과의 드문 만남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조사된 관계망을 Net Minor 3의 2D Spring으로 모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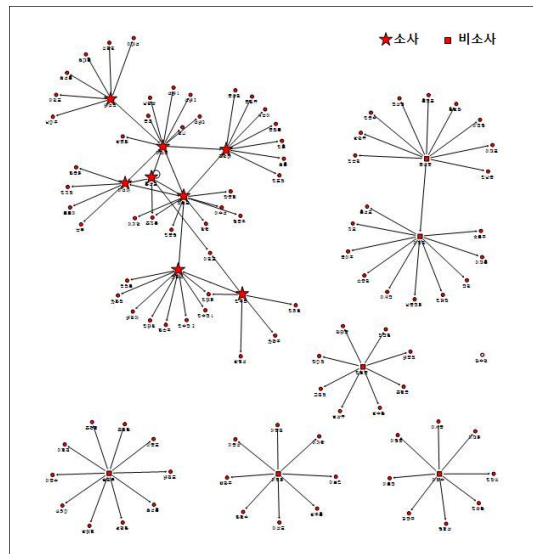


그림 2. 탑골만화방 방문객의 친밀한 관계 연결망

‘소사’들의 관계망은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소사가 아닌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독립된 형태로 나타난다. 소사와 비소사간의 친밀도는 차이가 있으

나, 소사들 간 ‘친밀한 관계’가 구축되어 있음은 탐골만화방이 공동체로 역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3〉처럼 ‘탐골만화방을 통해 알게 된 친밀한 관계’로 연결망을 확장하면, 관계망은 독립된 사람 없이 조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림 3〉에서는 〈그림 2〉의 연결망에서 보이지 않았던 탐골만화방 방문의 중개자 역할을 한 사람들이 드러나며, 이를 통해 탐골만화방은 관계들을 서로 엮어주는 공동체 공간으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 3〉에서 드러난 링크(행위자 사이의 관계) 수의 증가는 현재 연결되어 있지 않은 개인의 관계들 사이에도 링크가 지속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암시한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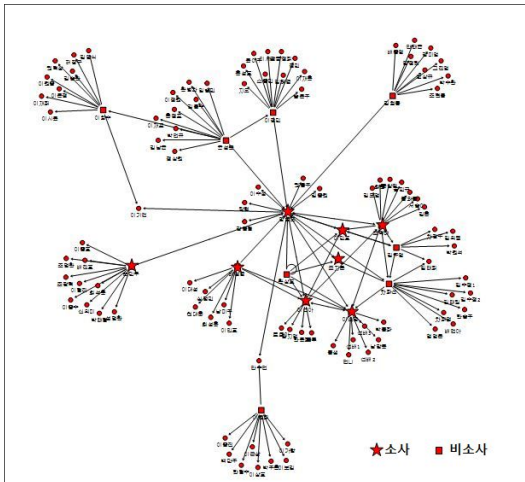


그림 3. 탐골만화방을 매개로 한 친밀한 관계 연결망

(2) 연결망의 공간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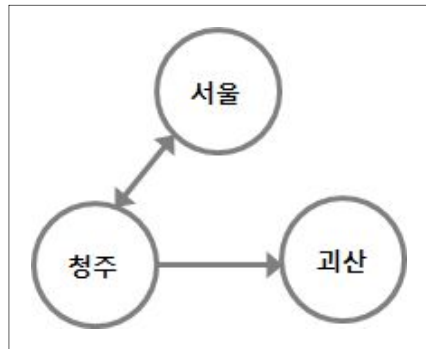
탐골만화방의 공간적 특성은 탐골만화방 방문객들과 그들이 맺고 있는 친밀한 관계들의 거주지를 노드로 상정하여 거주지간의 연결망을 분석한다. 주요 방문객들이 거주지와 탐골만화방 사이를 이동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거주지와 이곳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 의미한다.

기본 개념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행위자 A~C 사이에는 아래 매트릭스와 같은 관계를 형성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조사자 A와 B는 서로 간 친분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B는 C와 친분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이다. 이때 A는 서

울, B는 청주, C는 괴산에 거주한다면, A~C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공간적 네트워크를 나타낼 수 있다.

표 3. 행위자 A~C간 매트릭스

	A	B	C
A		1	0
B	1		1
C	0	0	



주) A는 서울, B는 청주, C는 괴산 거주자

그림 4. 공간적 네트워크 분석개념도

분석지표는 중심성 지표를 활용한다. 노드의 중심성은 전체 연결망 내에서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를 표현하며, 대표적인 지표가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이다. 연결정도 중심성은 한 노드가 갖는 링크의 비중을 통해 계산되며, 링크의 수가 많을수록 중심성이 높아진다. 근접 중심성은 한 노드가 다른 모든 노드와 연결되는 단계의 합을 통해 상대적으로 계산되며,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할수록 중심성이 높아진다. 매개 중심성은 특정 노드가 다른 노드들 ‘사이’(between)’에 존재하면서 노드를 연결해주는 ‘중개자(broker)’ 역할을 측정하는 지표이다.(John Scott, 2000)

연결정도 중심성과 근접 중심성은 연결 방향에 따라 그 노드를 향해 들어오는 링크 측면의 연결 정도를 측정하는 내향 중심성(in-degree centrality) 및 내향 근접성(in-closeness)과 그 노드에서 밖으

표 4. 탐골만화방 네트워크내 주요 도시의 중심성

구분	연결정도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내향 중심성	외향 중심성	내향 중심성	외향 중심성	
서울	1.4210	1.5263	0.2631	0.4210	0.0506
괴산	0.7368	0.5789	0.2192	0.4210	0.0477
대구	0.6842	1.4736	0.2192	0.3444	0.0360
부산	0.5263	0.5789	0.2192	0.3789	0.0146
김해	0.8421	0	0.1894	0	0
청주	0	1.1052	0	0.5633	0
상주	0	0.3684	0	0.4126	0

로 나가는 링크의 연결정도를 측정하는 외향 중심성(out-degree centrality) 및 외향 근접성(out-closeness)으로 세분된다.

연결정도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중심성 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같고, 결과값을 지도화하면 <그림 5>와 같다.

탐골만화방 네트워크에서 나타난 주요 도시는 서울, 괴산, 대구, 부산이다. 이 가운데 서울의 연결정도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이 가장

높다. 이는 탐골만화방 주요 방문객들과 소사들의 거주지가 서울이고, 왕래도 가장 빈번하기 때문이다. 탐골만화방이 위치한 괴산은 내향 중심성이 외향 중심성보다 높는데, 이것은 괴산의 지역주민은 괴산 외부보다는 주로 지역 내에서 활동하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김해의 경우 내향 중심성은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반해 외향 중심성은 0의 값이고, 역으로 청주와 상주는 내향 중심성은 0인데, 외향 중심성은 상대적으로 높다. 김해는 대구와 부산에 거주하는 방문객들 간의 상호 교류가 높기 때문에 내향중심성이 높다. 반대로 청주와 상주의 거주민들은 탐골만화방 방문에 따른 괴산 유입은 높으나, 탐골만화방 방문객들과의 지역 교류는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향중심성은 0이며, 이는 탐골만화방 방문객들이 청주, 상주로 이동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탐골만화방이 위치한 괴산을 매개로 도출된 이곳의 공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탐골만화방이 자리잡은 괴산 뿐 아니라 방문객들이 거주하는 서울, 대구, 부산이 중심성이 높다. 탐골만화방은 위치한 소재지만 있을 뿐 공동체의 영역적 경계는 괴산 뿐 아니라 광역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것이 특정 지역에 기반한 공동체의 경계가 그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과 가장 대비되는 특성이다.

둘째, 탐골만화방을 중심으로 한 공간적 네트워크가 전국에 걸쳐 확산되고 있으나, 뚜렷하게 경부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통신수단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면대면(face to face)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교통기반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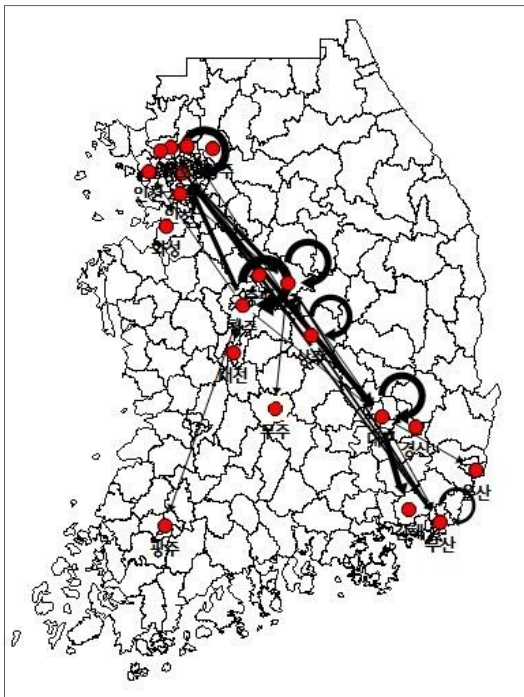


그림 5. 탐골만화방의 공간적 네트워크

설이 관계망 형성에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합의 및 시사점

공동체의 의미와 기능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이제 질문은 지역이 어떤 방식으로 공동체를 발전시키는가가 아닌, 각기 다른 시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공간을 상징적으로 점유해 가느냐이다.

이 과정을 추적해가기 위해 이 연구는 괴산에 위치한 탑골만화방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관계망 설문과 심층인터뷰를 병행하였고, 빈도분석과 사회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역에 기반한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명확한 공간적 경계가 설정되어 있고, 공동체로의 진입도 거주민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탑골만화방은 방문객들의 지역적 범위가 확장되면서 탑골만화방의 공간적 경계도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만화, 예술, 여행, 축제 등의 다양한 문화적 영역과 텃밭, 공동식사, 상호 학습 등의 공유 경제 프레임에 통합시키며 공동체의 사회적 경계 또한 확장되는 특성이 있다.

근접성 없는 공동체의 사례로서 탑골만화방의 공동체성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공공성 측면이다. 만화방은 공공공간으로 개방되어 있고, 게스트하우스는 도시 거주자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외부인과 지역민, 익숙한 사람들과 낯선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오고 가고 만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둘째, 다양성의 측면이다. 만화책, 문화, 예술, 귀농귀촌, 학습 등의 폭 넓은 가치와 관심사를 공유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프로그램들이 기획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기능상 복합적이고 잠재적인 공동체의 형식을 취한다.

셋째, 개방성 측면이다. 탑골만화방은 누구나 방문할 수 있고, 누구나 이곳의 '소사'가 될 수 있다. 원하는 활동을 제안할 수 있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방적인 공동체성을 가진다.

넷째, 공간성 측면이다. 괴산이라는 특정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탑골만화방을 통해 형성된 관계망은 광역적으로 형성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확장해 가고 있다. 이곳의 위치는 규정

할 수 있으나, 공간적 경계는 한정지을 수 없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공동체를 정의하는 주요 요인이었던 영역성과 근접성에 전면적으로 대립되는 결과이다.

'거주민'의 세계는 근린을 넘어 확장한다. 새로운 공동체는 신고통 수단과 잘 정비된 도로, 인터넷과 SNS의 흐름을 타고 지역을 초월하여 전국적으로 확장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들은 전체 도시, 또는 그 이상에 퍼져있는 장소와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탑골만화방은 삶과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는 촉매체로서 공공공간(public space)을 넘어 공간적으로 매개된 실천으로 연대된 사회행위들로 나타나는 공공성이자(Waal, 2014: 177) 사회적 공간적으로 확장해나가는 새로운 공동체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동체성은 탑골만화방에 국한된 결과로, 일반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탑골만화방은 공동체 이론가들이 예견하는 대로 사회적 공간적 경계를 초월하고 다양한 가치를 실험하는 공동체를 재현하는 실천적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사회 여러 분야와 조직에서 실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공동체들이 지속적으로 출현하여 지역과 개인의 삶의 촉매체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한다.

주

- 1) 탑골만화방의 공동체성에 대한 논의는 이곳의 운영자인 공공미술삼거리 양○○ 대표와의 인터뷰, 공식 행사인 '배꽃 필 무렵'에 참여했던 방문객들의 전언, 탑골만화방 공식 카페(cafe.naver.com/magada)와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groups/100596210120290/>), VOGUE, 오마이뉴스, 경향신문을 위시한 언론기관에 실린 관련 기사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 2) 2014년 겨울에는 만화가 지망생을 위해 일본 언더그라운드 만화지 <악스>의 편집장 아사카와 요시히로가 방문하여 일본 대안만화의 역사에 대해 특강하였다. 탑골만화방 세미나에서 처음 만화를 배운 한 미술작가는 2016년 만화책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 3) 수학에서 A=B이고, B=C라면 A=C라는 것을 전이성(transitivity)으로 정의한다. 사회네트워크에서도 같은 방식이 작동한다.(Neal, 2013: 35) 이러한 전이성 경향은 네트워크가 어떻게 밀접한 군집으로 확장되는지를 보여주며 이 과정은 Neal(2013)의 'The Connected City' 제3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문헌

- 김효동·김광재(편역), 2012, 소셜 네트워크 분석,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울(Scott, J., 2000, Social Network Analysis: A Handbook, Sage, London).
- 박경환(편역), 2014, 공간에 비친 사회, 사회를 읽는 공간, 한울 아카데미, 파주(Valentine G., 2001, Social Geographies: Space and Society, Routledge, London).
- 박행웅(편역), 2009, 네트워크 사회, 한울아카데미 (Castells, M., 2005, The Network Society: A Cross-cultural Perspective, Edward Elgar Publishing, Cheltenham).
- 유강은(편역), 2010,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그 린비, 서울(Jacobs, J., 1961,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Random House, New York).
- 윤형숙 옮김, 2004, 상상의 공동체, 나남, 파주 (Anderson, B., 1991, Imagined Communities : Reflections on the Origin & Spread of Nationalism, Verso, London).
- 이철우·박상민, 1998. 12, 사회적 연결망의 연구동향과 공간적 함의, 사회과학, 163-194.
- 조병설·홍성호·이만형, 2015, 도시 네트워크 관점에 근거한 국토 공간구조의 재해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7(1), 1-22.
- 한상진, 1991. 11, 지역 사회의 구조와 변동에 관한 이론적 시각, 사회와 역사, 189-201.
- Blokland, T., 2003. Urban Bonds: Social Relationships in an Inner City Neighbourhood. Cambridge, UK, Polity.
- Carrington, P. J., Scott J., and Wasserman S., 2005, Models and Methods in Social Network Analysi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Castells, M., 1996, The Information Age: Economy, Society, and Culture, Blackwell, Oxford.
- Cater, J., and Jones, T., 1989, Social Geography: An Introduction to Contemporary Issues, London: Edward Arnold.
- Hillery, G., 1955, Definition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111-123.
- Neal, Z. P., 2013, The Connected City, Routledge, New York and London.
- Olson, M., 1982,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 Reijndorp, A and E. Mik, 2005, Stad in Conflict, Platform Gras, Groningen.
- Rose, G., 1990, Imagining Poplar in the 1920s: Contested Concepts of Community, Journal of Historical Geography, 16, 425-437.
- Scott, J. P., 2000, Social Network Analysis: A Handbook, Thousand Oaks, California.
- Waal, M. de., 2014, The City as Interface: How New Media Are Changing the City, nai010 Publishers, Rotterdam.
- Webber, Melvin, 1963, Order in Diversity: Community without Proximity, UCLA Centre for Communications Policy, Los Angeles.
- Wellman B., 1979, The Community Question: the intimate networks of East Yorker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4, 15-27.
- Wellman et al., 2003, The Social Affordances of the Internet for Networked Individualism',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8(3), 2003, doi:10.1111/j.4083-6101.2003.tb00216.x.
- Wirth, L., 1938, Urbanism as a Way of Lif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44, 1-24.
- 탑골만화방 공식 카페
http://cafe.naver.com/magada/
- VOGUE, 2015, 다시 찾은 만화방, 2015.10.8.
- 오마이뉴스, 2014, '19금 일본만화' 보러 여기까지 옵니다, 2014.9.14.
- 경향신문, 2015, 혼자만 잘살면 뭐하나, 2015.4.21.
- 교신 : 홍성호, 28517,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2-1 충북연구원(이메일: hongsh@cri.re.kr, 전화: 043-220-1135)
- Correspondence : Hong Sung-Ho, 28517, Chungbuk Research Institute, 102-1 Daesung-Rho, Sangdang-Gu, Cheongju, Chungbuk, Korea(E-mail: hongsh@cri.re.kr, phone: +82-43-220-1135)
- (집수: 2016.07.12, 수정: 2016.08.15, 채택: 2016.08.25)